

지방 대학 ESP 교과목 편성을 위한 요구 분석 :공과계열을 중심으로*

하종범

금오공과대학교

Ha, Jong-Bum. (2013). Needs analyses for designing ESP curricula at a provincial university: Focus on engineering major. *Modern English Education*, 14(4), 185-205.

The current study explored needs analyses on ESP curricula at a provincial engineering university in South Korea. Written questionnaire and E-mail survey were employed to collect data from 766 undergraduate students and 69 professors to see how they differ in their needs for types of English curricula in terms of English for General Purposes (EGP),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EAP), English for Occupational Purposes (EOP), and English for Test Preparation (ETP). Analyses were extended on students' majors, years and TOEIC scores to find if these variables would possibly explain differential needs among students, and to determine how to implement ESP curricula for a provincial engineering university. The findings suggested that while both students and professors as a whole put more importance on EGP and ETP over EAP and EOP,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groups in terms of majors, years and TOEIC scores. Students whose TOEIC scores are 800 or higher preferred ETP and EOP to EAP and EGP, while professors' preferences are more like those of the students with TOEIC scores of 400 to 600. Based on these findings some pedagogic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ESP/needs analysis/a provincial university/engineering major/
특수목적용을 위한 영어/요구분석/지방대학교/공과계열]

* 이 연구는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된 논문임.

I. 서론

오늘날 세계화의 물결은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 개혁을 몰고 왔으며, 이러한 글로벌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정분야의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공과대학은 국제 경쟁사회에서 공학도들이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영어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 및 전공분야의 지식을 제공하고, 미래의 직업과 연관된 실용목적의 영어 학습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학 전공의 영어 학습자의 전공교과와 관련한 영어활용능력은 전문화 되어가는 국제 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전공과 관련한 영어 능력은 국제화 시대에 정보를 얻는 도구로서 그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 공학이라는 변인에 지역이라는 또 하나의 변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간의 영어 능력이라는 점에서의 학생 수준 차가 크다는 것이 지방 공과대학에서 합리적인 영어 교과과정을 구축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지방대학은 물론 수도권대학에서조차 학생들의 교양영어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에 비해 만족도가 낮으며, 교육내용이 학생들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고, 제공되는 교육과정을 통해 일정 수준의 영어 능력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박남식, 조준학, 김충배, 김임득, 최인철, 1998; 정동수, 김해동, 2001; 조세경, 문승철, 이강혁, 1997; 조정순, 2002).

이러한 점에서 Hutchinson과 Waters(1987)가 제안한 것처럼 학생들의 수준과 진로에 따라 구별된 목표를 설정하여 교육을 제공하도록 교육과정의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며,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기존의 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교육 목표로 '교양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반적인 목적의 영어(English for general purposes; EGP)'와 차별되는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전공과 관련한 영어 능력은 특수목적에 위한 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SP)'를 교과과정에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현진, 2005). 여기에 TOEIC 등 취업을 위해 필요한 공인영어성적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이 또한 하나의 범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실정이며 본 연구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 소재 공과대학의 실정에 맞는 교양영어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K대학의 학생들과 전공교수¹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인식하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어 교과목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대상은

¹ 본 연구에서 '전공교수'는 K대학의 공학계열, 자연계열과 경영학과 소속 전임 교원들을 의미한다.

공과계열이나 전공 간의 인식 차가 있을 개연성을 감안하여 자연계열과 경영학과를 포함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 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학생들이 선호하는 영어 교과목의 유형을 전공, 학년, TOEIC 성적 등의 변인별로 조사하여 논의함으로써, 향후 합리적인 ESP 영어 교과과정 편성을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문헌 연구

1. ESP의 분류체계와 최근 국내 연구 동향

ESP는 사회적 요구와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분류체계가 있으나, 그림 1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학문적인 목적으로 익히는 영어(EAP)와 취업과 전문직 종사를 목적으로 하는 영어(EOP)의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Dudley-Evans & St. John, 1998, p.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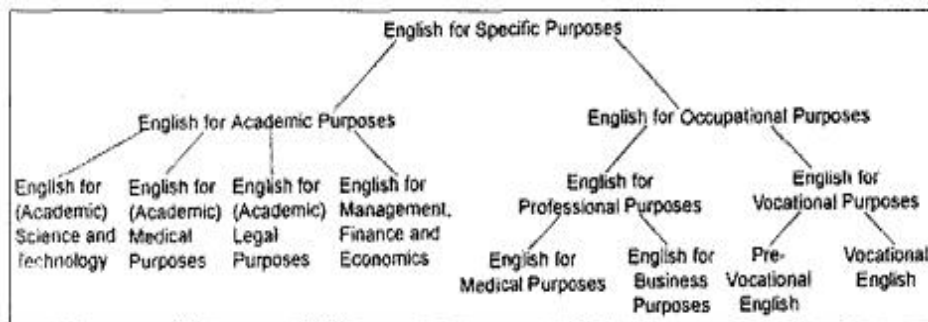


그림 1 ESP 분류표

EAP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 습득을 위한 기초능력으로서의 영어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교과목을 통칭하며, EOP는 관광영어, 항공영어 등 구체적인 직업군과 연계하여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으로 개설되는 교과이다. 한편으로, EAP와 EOP는 각각 General Purposes와 Specific Purposes의 교과로 더욱 세분화된다. 즉, EAP는 English for General Purposes와는 구별되되 제반 학문 분야의 기초가 되는 English for General Academic Purposes(EGAP)와 세부 전공에서 요구되는 영어지식과 기능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English for Specific Academic Purposes(ESAP)로 다시 세분된다(Blue, 1988; Hutchinson & Walter, 1987; Jordan, 1997). 마찬가지로, EOP도 English for General Occupational Purposes(EGOP)와 English for Specific Occupational Purposes(ESOP)로 구분된다.

이에 더하여 김현옥(2008)과 H. O. Kim(2009)은 국내 대학의 경우, TOEIC, TOEIC Speaking, TEPS를 준비하기 위한 ‘시험 준비를 위한 영어(English for Test Preparation)’ 교과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앞서 소개한 Dudley-Evans와 St. John(1998)의 분류체계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교과과정 내지 프로그램을 준 ESP 프로그램(semi-ESP program)으로 명명하여 EGP와 ESP의 혼합된 형태로 분류하였다(H. O. Kim, 2009). 대학졸업생들이 갖는 국내 취업시장에서의 TOEIC 등 공인영어 성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분류에 더하여 TOEIC 등을 직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교과목을 넓은 의미의 ESP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국내 ESP 교과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ESP 교과 확대를 위한 일련의 노력들은 요구조사의 형태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요구조사는 2년제 대학의 경우 실무영어 혹은 관광영어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선(김현진, 성명희, 2006; 김현진, 이종복, 윤재홍, 2006; 최경희, 2006)을 대상으로 한 반면, 4년제 대학의 경우 국제회의영어, 비서영어 외에도 공학영어(박부남, 2006a, 2006b), 의학영어(Y. Soh, 2003, 2004) 등이 조사되었다. 그 밖에, ESP 교재분석(유근선, 2001)이나 ESP 영어능력 평가(신동일, 2003; 전지현, 최윤미, 2002)나 ESP 수업과 EGP 수업에 대한 수업만족도의 비교평가 등 연구의 주제가 보다 광범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해당 분야에서만 두드러지는 언어특성이나 어휘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소규모 코퍼스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특수코퍼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세부전공 분야—전자공학, 재료공학, 기계공학 등—에 대한 좀 더 세밀한 ESP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신창원, 2012; 정미애, 2007; Bennett, 2010; Conrad, 2002; M. S. Park & S. H. Kim, 2011). 이에 대해 신창원(2012)에서 공학 분야의 소규모 코퍼스를 구축하여 ESP 교육을 시도하였고, 이는 영어교수자의 부족한 전공지식을 보완하고 동시에 개별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세은과 변현정(2011)은 해사영어코퍼스(Maritime English Corpus)에서 나타나는 어휘적인 특징을 일반영어를 대표할 수 있는 참조 코퍼스로 LOB 코퍼스 혹은 BNC 코퍼스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를 보면, 이러한 어휘목록과 키워드 목록을 통해 해사영어의 이해를 돕고 해사영어교육을 위한 교재의 토대가 되어 교사와 학습자 양측 모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2. 공과대학에서의 ESP

박부남(2006a)은 지방대학 이공계 학생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개발을 목적으로 학생들과 교수진을 대상으로 요구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주제로, 수요자, 즉 학생, 의 특징과 영어 학습에 관한 그들의 요구·관심과 필요한

언어 기능을 알아보고, 공과대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언어교육 교수·학습 모형과 활동을 규명하여 3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의사소통중심의 단계별 학습을 제안하였고, 둘째로, TOEIC 학습을 통한 영어 능력 향상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학습자 위주의 과제중심 협력 학습을 제안하였는데, 특히 말하기 수업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되 말하기와 쓰기 기능 중심으로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는 수업이 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특정 교과목에 기반을 둔 언어 학습에 대한 선호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실질적인 의사소통 및 직업을 얻고자 하는 동기와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특정 그룹에 대한 모형의 가이드라인은 먼저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핵심그룹에서 제시한 미래의 직업과 연관된 실무 위주나 교과목 연관 수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박부남(2006b)은 컴퓨터 정보통신 공학부 영어 교수 학습 모형 개발을 위해 해당 전공 학생, 교수진, 그리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로, 해당 전공에서 제공하는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의 특징과 영어 학습에 관한 학생, 교수진과 직장인들의 요구와 관심을 알아보고, 해당 전공교과목과 언어를 통합하는 교수·학습 모형과 이 학습 모형의 이행 방법을 규명하여 3가지로 요약 하였다. 첫째, 학생들은 공학영어는 실생활에서 별로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에, 해당 분야의 직장인들은 업무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영어가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둘째로, 전공교과목과 관련한 영어기능에 있어, 학생과 교수진 모두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교수진은 ‘쓰기’의 중요성을 아울러 강조했다. 반면에, 의사소통 도구로 학생들은 ‘말하기’를 중요하게 꼽은 것에 반해, 직장인은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이메일 쓰기와 신기술 제품을 발표할 수 있는 말하기 기능을 중요하게 꼽았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된 것처럼 실질적인 의사소통 및 취업을 위한 영어를 중요시하는 학생들과, 이러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이외에 전문적인 기술인이 되기 위한 전공과 연관된 실무위주의 영어 학습을 원하는 교수와 직장인들의 요구를 통합한 영어전문가와 공과대 전문가의 협력 수업인 CBI(Content-based instruction)를 제시하였다.

이정민과 홍영지(2010)는 공학교육혁신센터의 교육목표에 맞춘 공학도를 위한 영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요구 조사를 실행하였다. 특히 공학·자연 계열 학생들이 인문 계열 학생들보다 영어 숙달도 및 의사소통 능력,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하다는 가설을 검증하고 이들의 요구를 교과과정 구성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연구 결과로 공학 전공의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낮은 TOEIC 성적을 받았고, 이들의 첫째 교육 목표는 일상 대화와 같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공과대학생들의 상대적으로 약한

내재적·외재적 동기를 고양하기 위해 내용중심의 교수법의 약한 버전인 주제중심 교수법(Them-based instruction)을 제안하였다. 학년별 교과목 유형을 보면, 아직 진로에 대한 목표 의식이 뚜렷하지 않는 저학년에서는 일반적인 영어 숙달도를 먼저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이는 교재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전공 관련 ESP 교재보다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는 EGP 교재를 선호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홍영지와 이정민(2011)은 공과대학 학생들과 교수진들의 요구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학도를 위한 교양영어프로그램의 세부 목표 및 교수방법과 향후의 학습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먼저, 목표에 대한 학생과 교수진의 공통점으로, 첫째,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에서 일상대화의 말하기, 듣기의 중요성을, 둘째, 취업을 위한 영어학습의 필요성을, 셋째, 읽기를 전공과 관련된 지식을 위한 수단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말하기와 쓰기 기능에서 두 집단 간의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데, 교수들은 일반적인 의사소통 목적보다도 전공지식과 관련한 학문적 목적의 세미나 혹은 강의 듣기나 발표와 토론 등을 위한 말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쓰기에서도 교수들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력서 쓰기 등의 실용, 실무적 목적이 높긴 하였으나, 전공내용의 논문작성인 학문적 목적의 쓰기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공과 관련한 의사소통 능력의 5단계 학습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는데, 첫째, 기본의사소통능력(EGP/EGOP) 또는 전공과 관련한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둘째, 전공과 관련한 의사소통 목적(EGAP)을, 셋째, 전공의 내용과 관련한 취업목적이나 취업대비 실무목적의 의사소통능력을, 넷째, 고학년이 될수록 특수전공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영어로 구사할 수 있는 실무능력(ESOP)을 목표로 하는 수업을 개발할 것을, 마지막으로 특수전공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영어로 구사할 수 있는 학문적인 능력을 다루는 ESAP를 목표로 하는 수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공학도를 위한 ESP 영어교육의 목표는 현재 학습자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 후에 전공과 관련한 주제를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고, 더 나아가 미래에 전문적인 분야의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영어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연구 문제

문헌연구를 통하여 ESP 교과목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했고, 지방 소재 공과대학의 학생들과 전공교수들이 인식하는 교과목의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 문제들을 도출하였다.

- 1) 공학 전공 학생들과 비공학 전공 학생들간의 선호하는 영어 교과목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지방 대학 ESP 교과목 편성을 위한 요구 분석 : 공과계열을 중심으로 191

- 2) 학년과 TOEIC 성적별로 선호하는 영어 교과목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 3) 학생들과 전공교수들의 영어 교과목에 대한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가?

III. 연구 방법

1.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하여 K대학 재학생 766명과 전공교수 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² 학생 참여자들 중, 남자 626명, 여자 181명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 292명, 2학년 166명, 3학년 113명, 4학년 236명이었다. 전공별로는 총 19개의 전공을 9개의 유사 전공으로 묶었을 때, 기계계열 11명, 전자계열 137명, 토목·환경·건축 86명, 산업공학 59명, 컴퓨터·소프트웨어 89명, 신소재계열 66명, 자연계열 94명, 소재디자인 49명, 경영학과 1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³ 설문조사를 한 교과목⁴ 별로는 ‘영어읽기와이해’ 322명(8개 반), ‘실용영문법’ 108명(2개 반), ‘초·중급영어회화’ 317명(18개 반), ‘미국의제도와관습’ 60명(2개 반)으로 집계된다. TOEIC 성적별로는 400점 미만 180명, 400~600점 미만 266명, 600~800점 미만 139명, 800점 이상이 36명으로 전체 766명의 대상자 중 621명이 TOEIC 성적을 묻는 항목에 답하였다. 한편으로 전공교수를 전공별로 분류하면 기계계열 18명, 전자계열 15명, 자연계열 7명, 기타(토목·환경·건축, 산업공학, 컴퓨터·소프트공학, 신소재·에너지융합, 메디컬IT, 소재디자인) 26명으로 구성된다.

2. 연구 도구 및 절차

연구 도구로 학생들을 위한 설문지(부록1)와 전공교수를 위한 이메일 설문문항(부록2)을 사용하였다. 학생 설문조사는 2013년 1학기 말에 실시되었는데, 당시 개설 중인 영어 교과목별로 무작위로 일부를 선정하여 해당 교과목 교강사에게 요청하여 수업 시간에 작성되었다. 설문지의 구성은 인적사항(성별, 학년, 전공, 수강 교과목명, TOEIC 성적)과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² 원래 학생 838명과 전공교수 8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학생의 경우 주요 인적 사항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전공교수의 경우 89명의 대상자 중 69명이 이메일 회신을 하였다.

³ K대학은 특성화 종합공과대학으로서, 공학계열이 주를 이루고 두 개의 자연과학계열 학과(응용수학, 응용화학)와 경영학과를 포함한다.

⁴ K대학교의 영어교과목은 교양필수 ‘영어읽기와이해’와 ‘영어읽기와쓰기’, 교양선택 ‘실용영문법’, ‘고급영어’, ‘공학영어’, ‘자연과학영어’, ‘실용영어’, 그리고 5개 수준의 ‘영어회화’로 구성된다.

영어교과목 목록⁵ 과 개설 희망하는 영어 교과목 유형의 우선순위를 설문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영어 교과목 유형은 ‘기초 영어 실력을 다지는 교과목(EGP)⁶’ (예: 기초영문법, 기초영어글쓰기), ‘전공학습에 필요한 영어 교과목(EAP)’ (예: 전공영어독해연습, 전공영어글쓰기), ‘졸업 후 실무에서 사용될 영어 교과목(EOP)’ (예: 실무영어독해, 실무영어글쓰기), ‘취업영어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영어 교과목(ETP)’ (예: TOEIC, TOEIC Speaking, OPIc)의 4유형으로 단순화하여 제시하였다. ETP는 앞서 김현옥(2008)과 H. O. Kim(2009)이 분류한 English for Test Preparation을 따른 것이다. 홍영지와 이정민 (2011)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하여 질문을 했는데, 이는 학생들과 전공교수들의 유형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묻기 위함이었다.

전공교수 설문조사는 전체 전공을 대상으로 전공별로 인원을 안배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이 이루어졌는데, 총 89명의 전공교수에게 송부하여 69명에게서 회신을 받았다. 1차 분석을 마친 후, 대부분의 교수들과 상이한 답변을 한 10명의 교수들에게는 그 이유를 묻는 추가 이메일 설문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9명의 교수들에게서 재차 답변을 받았다. 이들의 답변은 통계를 이용한 양적 분석에 부가하여 결과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3. 분석 방법

수합된 학생 설문지는 먼저 기술통계를 위해, 항목별로 빈도수를 집계하고 백분율을 계산하였으며, 평균, 표준편차들을 집계하였다. 독립변수인 학년, 전공, 성별, TOEIC 등에 따라, 종속변수인 선호 유형에 대한 분포를 파악하였는데, 변수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사용하였고, 필요시 추가로 t 검정을 사용하여 개별 변수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유형별 영어 교과목 선호도는 상기 언급되었듯이 각각 ‘기초 영어 실력을 다지는 교과목(EGP)’, ‘전공학습에 필요한 영어 교과목(EAP)’, ‘졸업 후 실무에서 사용될 영어 교과목(EOP)’, ‘취업영어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영어 교과목 (ETP)’로 분류하여 선호하는 순위를 분석하였다.

⁵ 개설 희망 영어교과목에 대한 답변은 내부 자료로 사용하고 본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⁶ 기존 연구에서 EGP라 하면 통상적으로 Hutchinson & Waters(1987)가 제안한 ‘일반적인 목적의 영어’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초 영어 실력을 다지는 교과목’으로 한정하여 정의한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각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를 기술통계와 통계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얻은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전개하고자 한다.

1. 공학 전공 학생들과 비공학 전공 학생들간의 선호하는 영어 교과목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전체 766명의 학생 참여자 중 공학계열(566명), 자연계열(88명), 경영학 전공(112명)으로 나누어 분석을 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
계열별 교과목 유형 선호도 평균

| 유형\계열 | 전체(766) | 순위 | 공학(566) | 순위 | 자연(88) | 순위 | 경영(112) | 순위 |
|-------|---------|----|---------|----|--------|----|---------|----|
| EGP | 2.03 | 1 | 2.09 | 1 | 1.75 | 1 | 1.96 | 1 |
| EAP | 2.78 | 3 | 2.78 | 3 | 2.69 | 3 | 2.88 | 4 |
| EOP | 2.91 | 4 | 2.89 | 4 | 3.05 | 4 | 2.86 | 3 |
| ETP | 2.28 | 2 | 2.24 | 2 | 2.51 | 2 | 2.30 | 2 |

표 1은 각 교과목 유형에 대해 전체 학생들과 각 계열 학생들이 갖는 순위의 평균을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과목으로 선택했다는 의미이다. 전체 학생들의 교과목 유형 선호도는 EGP → ETP → EAP → EOP의 순서이며, 이는 공학계열과 자연계열의 선호도와 동일하다. 반면에 경영학과의 평균치는 EGP → ETP → EOP → EAP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나나, 분산분석을 통해 볼 때 3개 계열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독립표본 t 검정으로 3개의 계열을 두 개씩 묶어서 분석한 결과 공학계열과 자연계열간 EGP와 ETP에서 아래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표 2
공학계열과 자연계열의 교과목 유형 선호도 평균 분석

| 유형 | 계열 | 평균 | 표준편차 | t | p |
|-----|----|------|------|-------|--------|
| EGP | 공학 | 2.09 | 1.32 | 2.26 | 0.024* |
| | 자연 | 1.75 | 1.19 | | |
| EAP | 공학 | 2.78 | 0.89 | 0.80 | 0.423 |
| | 자연 | 2.69 | 0.81 | | |
| EOP | 공학 | 2.89 | 0.99 | -1.35 | 0.177 |

| | | | | | |
|-----|----|------|------|-------|--------|
| | 자연 | 3.05 | 0.92 | | |
| ETP | 공학 | 2.24 | 1.02 | -2.35 | 0.019* |
| | 자연 | 2.51 | 1.03 | | |

* $p < .05$

표 2에 따르면 공학계열과 자연계열의 교과목 유형 선호도의 평균 순위는 동일하지만, 두 계열간의 평균치는 각각 EGP 2.09 대 1.75와 ETP 2.24와 2.51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EGP에 대한 선호도는 자연계열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반면에 ETP에 대한 선호도는 공학계열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즉, 자연계열 학생들이 기초 교과목을 상대적으로 좀 더 선호한다면, 공학계열 학생들은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과목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전공 변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연구 문제 2번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2. 학년과 TOEIC 성적별로 선호하는 영어 교과목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먼저 학년별로 선호하는 영어 교과목 유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체 766명의 학생 참여자 중 1학년(275명), 2학년(159명), 3학년(107명), 4학년(225)로 나누어 분석을 하여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3
학년별 교과목 유형 선호도 평균

| 유형\학년 | 1학년(275) | 순위 | 2학년(159) | 순위 | 3학년(107) | 순위 | 4학년(225) | 순위 |
|-------|----------|----|----------|----|----------|----|----------|----|
| EGP | 1.89 | 1 | 2.01 | 1 | 2.29 | 2 | 2.10 | 1 |
| EAP | 2.69 | 3 | 2.79 | 3 | 2.89 | 4 | 2.83 | 3 |
| EOP | 3.01 | 4 | 2.89 | 4 | 2.75 | 3 | 2.86 | 4 |
| ETP | 2.41 | 2 | 2.31 | 2 | 2.06 | 1 | 2.20 | 2 |

분산분석을 통해 볼 때, EGP($F=2.801$, $p=0.039^*$)와 ETP($F=3.726$, $*p=0.011^{**}$)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학년 간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학년의 선호도를 보면 모든 학년에 걸쳐 EGP나 ETP를 우선적으로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적어도 EGP가 아닌 ESP 유형의 교과목을 선호할 수도 있겠다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TOEIC 성적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후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TOEIC 성적과 선호하는 영어 교과목 유형을 알기 위해, TOEIC 성적에 답변을 한 621명의 학생 참여자 중 400점 미만(180명), 400~600점 미만(266명),

지방 대학 ESP 교과목 편성을 위한 요구 분석 : 공과계열을 중심으로 195

600~800점 미만(139명), 800점 이상(36명)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여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4

TOEIC 성적별 교과목 유형 선호도 평균

| 유형\토익 | 400미만 (180) | 순위 | 400~600미만 (266) | 순위 | 600~800미만 (139) | 순위 | 800이상 (36명) | 순위 |
|-------|----------------|----|--------------------|----|--------------------|----|----------------|----|
| EGP | 1.57 | 1 | 2.14 | 1 | 2.49 | 2 | 2.81 | 4 |
| EAP | 2.66 | 3 | 2.77 | 3 | 2.89 | 4 | 2.78 | 3 |
| EOP | 3.22 | 4 | 2.91 | 4 | 2.59 | 3 | 2.31 | 2 |
| ETP | 2.55 | 2 | 2.17 | 2 | 2.03 | 1 | 2.11 | 1 |

분산분석을 통해 볼 때 EGP(F=18.616, p=0.000**), EOP(F=16.363, p=0.000**), ETP(F=8.328, p=0.000**)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TOEIC 성적 간 차이가 나타났다. TOEIC 성적이 낮은 학생은 EGP → ETP → EAP → EOP 순서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TOEIC 성적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는 ETP → EOP → EAP → EGP 순서의 선호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EGP와 ETP에 대해 학년과 TOEIC 성적 모두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TOEIC 성적은 EOP에 대해서도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공, 학년, TOEIC 성적을 독립변수로 놓고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선호하는 영어 교과목 유형 차이에 대해 가장 설명력 있는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 EAP를 제외한 EGP(R제곱 0.086, p=0.000**), EOP(R제곱 0.080, p=0.000**), ETP(R제곱 0.030, p=0.001**) 교과목 유형에서 TOEIC 성적이 영어 교과목 유형 선호도에 대해 가장 설명력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연구 문제 1의 결과로 돌아가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기초 교과목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고 공학계열 학생들은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과목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선 선형회귀분석에서 밝혔듯이 전공의 특성보다는 공학계열 학생들의 TOEIC 성적, 즉, 영어 실력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아래 표 5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전공별 TOEIC 성적을 보여준다.

표 5

전공별 TOEIC 성적 분포 및 평균

| 계열\TOEIC | 400미만 | 400~600미만 | 600~800미만 | 800이상 | 평균 |
|----------|-------|-----------|-----------|-------|------|
| 공학(463) | 129 | 186 | 118 | 30 | 2.11 |
| 자연(66) | 24 | 34 | 6 | 2 | 1.79 |
| 경영(92) | 27 | 46 | 15 | 4 | 1.96 |

400 미만(1), 400~600 미만(2), 600~800 미만(3), 800 이상(4)로 코딩되어 평균값 산출함.

분산분석을 통해 볼 때, 전공 계열은 TOEIC 성적의 차이에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난다($F=4.609, p=0.010^{**}$). 즉, 공학, 경영, 자연의 순서대로 TOEIC 성적이 높으며, 이는 영어 교과목 유형 선호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학년과 TOEIC 성적간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논의해보기로 한다. 먼저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상호 유의한 수준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earson 상관계수=0.535, $p=0.000^{**}$, $N=621$), 분산분석을 통해 볼 때, 학년은 TOEIC 성적의 차이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F=84.536, p=0.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3에서와 같이 전체 학년의 선호도를 보면 모든 학년에 걸쳐 EGP나 ETP를 우선적으로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적어도 EGP가 아닌 ESP 유형의 교과목을 선호할 수도 있겠다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차이가 있다.

반면에 TOEIC 성적별로 보면, 앞서 언급했듯이 TOEIC 성적이 낮은 학생은 EGP → ETP → EAP → EOP의 순서로 교과목 유형 선호도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TOEIC 성적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는 ETP → EOP → EAP → EGP의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특히, EGP와 ETP에 더하여 EOP에서 TOEIC 성적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단순히 고학년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교과목 유형에 대한 선호도, 특히 EGP와 ETP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영어실력을 갖추었다고 학생 스스로 느낄 때 달라지는 것이다.

3. 학생들과 전공교수들의 영어 교과목에 대한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가?

아래 표 10~12는 참여한 69명의 전공교수의 답변을 바탕으로 교과목 선호도의 평균치와 순위를 매긴 것으로, 앞서 표 1, 3, 4에서 제시한 전체 학생들과 전공 계열별, 학년별, TOEIC 성적별 선호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함께 제시해보기로 한다. 이어서 대다수 전공교수들과 상이한 답변을 한 10명의 전공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도록 한다.

먼저, 전공교수와 전공 계열별 교과목 유형 선호도에서 분산분석과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전공교수와 전체 학생, 그리고 계열별로 교과목 선호도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전공교수와 학년별 교과목 유형 선호도에서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전공교수와 각 학년을 대조하여 분석한 결과, 전공교수와 3학년 학생들의 교과목 선호도가 EOP($t=-2.123, p=0.035^{*}$)와 ETP($t=-1.974, p=0.05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전공교수의 EOP와 ETP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 4순위와 2순위로 3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과 동일한 반면에, 3학년 학생들의 이들 유형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 3순위와 1순위로 전공교수를 포함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대학 ESP 교과목 편성을 위한 요구 분석 : 공과계열을 중심으로 197

마지막으로, 표 6에서 전공교수와 TOEIC 성적별 교과목 유형 선호도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표 6

전공교수와 TOEIC 성적별 교과목 유형 선호도 평균

| 유형\대상 | 전공교수 (69) | 순 위 | 400미만 (180) | 순 위 | 400~600미만 (266) | 순 위 | 600~800미만 (139) | 순 위 | 800이상 (36명) | 순 위 |
|-------|--------------|--------|----------------|--------|--------------------|--------|--------------------|--------|----------------|--------|
| EGP | 1.97 | 1 | 1.57 | 1 | 2.14 | 1 | 2.49 | 2 | 2.81 | 4 |
| EAP | 2.61 | 3 | 2.66 | 3 | 2.77 | 3 | 2.89 | 4 | 2.78 | 3 |
| EOP | 3.06 | 4 | 3.22 | 4 | 2.91 | 4 | 2.59 | 3 | 2.31 | 2 |
| ETP | 2.36 | 2 | 2.55 | 2 | 2.17 | 2 | 2.03 | 1 | 2.11 | 1 |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전공교수와 각 TOEIC 성적을 대조하여 분석한 결과, 전공교수의 교과목 선호도는 TOEIC 400점미만의 학생들의 선호도와 EGP($t=-2.564, p=0.01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아울러 600~800점미만의 학생들과 EGP($t=2.667, p=0.008^{**}$), EAP($t=2.005, p=0.046^*$), EOP($t=-3.368, p=0.001^{**}$), ETP($t=-2.234, p=0.027^*$)에서, 그리고 800점 이상의 학생들과 EGP($t=3.201, p=0.002^*$)와 EOP($t=-3.763, p=0.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 전공교수와 전공 계열, 학년, TOEIC 성적별 교과목 선호도를 대조·분석한 결과, 전공 계열별로 볼 때 전공교수의 교과목 선호도는 전체 전공 계열의 선호도와 대체로 유사였으며, 학년별로 볼 때 3학년 학생들의 EOP와 ETP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선호도와 큰 차이는 없었다. 한편 TOEIC 성적별로 볼 때, 400점미만의 학생들과는 EGP에서, 600점 이상의 학생들과는 대다수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결과적으로 전공교수들은 다수 집단인 TOEIC 400~600미만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공교수의 대다수가 전체 학생들과 동일하게 EGP와 ETP를 상위 순위로 선택한 데 비해, 전체 69명의 응답자 중 10명의 전공교수들이 EAP 혹은 EOP를 우선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9명의 전공교수로부터 추가 답변을 받았는데, 이 중 8명이 EAP를 1순위로 선택했고, 1명(전공교수F)은 EOP를 1순위로 EAP를 2순위로 꼽았다. EAP를 1순위로 놓은 경우에, 원서로 하는 전공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고, 아울러 전공 분야 특유의 단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급속도로 발전하는 전공분야를 학습하기 위하여, 그리고 해외 기술 교류/영업, 국제 무역 등 전공과 관련 영어 구사능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비록 한 명에 그쳤지만 EOP와 EAP를 각각 1, 2순위로 놓은 전공교수F는 대학에서의 영어교육은 실무능력강화를 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하고, 전공영어는 사실 전공 내 원서로 하는 수업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아울러 TOEIC은 정규 교과과정보다는 방학특강을 이용해야 하고, 개인이 스스로 복습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추가 설문(부록 2의 3번 문항)에서, ESAP 교과목을 개설한다면 이상적인 교육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을 포함했는데, 영어전공교수(5), 전공교수(20), 영어전공교수와 전공교수의 팀티칭(29), 기타(3), 불필요함(3), 필요하나 운영하기 비현실적임(3)의 분포로 답변이 이루어졌다. 즉, 전공의 특성상 영어전공교수 단독으로 강의하기는 어렵고, 전공교수나 팀티칭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공학이라는 전공의 특성상, 교과목의 내용을 모르는 영어강사가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인식이 전공교수간에 퍼져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SAP 교과목 운영 시, 교양영어 주무부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적어도 전공부서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VI. 결론

1. 논의 및 결론

연구 문제 1번과 2번은 전공, 학년, TOEIC 성적 변인별 교과목 유형 선호도를 조사한 것으로, 이들 변인 중 TOEIC 성적 변인이 가장 설명력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유의할 점은, 교과목 유형 선호도에서 TOEIC 성적이 낮은 집단(600점 이하)은 EGP → ETP → EAP → EOP의 순으로, 반면에 TOEIC 성적이 가장 높은 집단(800점 이상)에서는 ETP → EOP → EAP → EGP의 순의 선호도를 보였다. 즉, ESP 교과목에 대해 학생들이 갖는 필요성은 전공, 학년별 분석을 통해 항상 3, 4순위를 벗어나지 못한 반면, TOEIC 고득점(여기서는 800점)을 획득한 이후에야 비로소 2, 3순위(각각 EOP, EAP)에 등극하였다. 따라서 ESP 교과목 개설 시기를 결정할 때, 적어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영어 능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후에야 수강을 할 여력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 문제 3번은 학생들과 전공교수들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전체 학생들의 선호도에 더하여 학생들의 전공 계열, 학년, TOEIC 성적별 교과목 선호도와 대조·분석한 결과, 전공교수들의 선호도는 학생들의 선호도와 순서면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단, 전공교수의 선호도는 TOEIC 400~600미만의 학생들의 것과 유사하였으며, TOEIC 400점미만의 학생들과는 EGP에서, TOEIC 600점 이상의 학생들과는 대다수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추가설문을 통해 얻은 전공교수들의 답변을 통해 볼 때, EGP나 ETP가 아닌 EAP를 1순위로 놓은 이유로, 원서로 하는 전공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전공 분야 특유의 단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급속도로 발전하는 전공분야를 학습하기 위하여,

그리고 해외 기술 교류·영업, 국제 무역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비록 한 명이지만 EOP와 EAP를 각각 1, 2순위로 놓은 전공교수의 예는 이상적인 대학 교양영어의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보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전공교수들은 대다수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잘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교과과정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국제화 시대에 특수 목적 및 전공분야의 지식을 제공하고, 미래의 직업과 연관된 실용목적의 영어 학습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일반적인 목적의 영어(EGP)’와 차별되는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전공과 관련한 영어 능력은 특수목적에 위한 영어(ESP)’를 교과과정에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김현진, 2005)에 타당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지방소재 대학에게 고민거리를 남긴다. 본 연구의 대상인 K대학의 경우에서처럼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에 수도권 대학에 비해 영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탓에 기초영어 교과목에 대한 수요가 높고, 기업체 입사 전형이 TOEIC, OPIc 등 공인영어성적을 요구하는 등 학생들의 영어 학습의 목표를 결정하고, 결과적으로 대학의 영어 교과과정 편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대학은 국제사회에서 대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인지하는 동시에, 학생들과 전공교수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현실적으로 타당한 영어 교과과정을 제공해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교육적 암시 및 향후 연구

지방대학의 경우 기초영어 실력 함양과 영어공인성적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영어 교과목에 대한 요구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전 학년에 걸쳐 더 골고루 분포될 개연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통상적으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년별 교과과정은 고학년으로 진학을 하면서 영어의 전반적인 능력이 향상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나, 지방대학의 경우 입학 시 기초 영어 능력을 갖추지 못한 다수의 학생들은 결국 이러한 전제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과 ESP 교과목의 필요성, 학생과 전공교수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 공과대학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저학년 교과목에 자연과학영어, 공학영어와 같은 EGAP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교육의 주체는 영어전공교수가 될 것이며,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수강이 가능하게 하되, 공인영어시험 준비(ETP)와 전공분야의 영어 학습(ESP)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ESP는 ETP 학습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학생들의 고정관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연과학과 공학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되, 전공 영어 해독 능력

강화를 우선 목표로 삼고, 동시에 어휘, 구조, 문법 등을 학습하고, 평가에도 이들을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EAP 교과목을 개설하되 저학년 때와는 차별화한 ESAP 교과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공학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영어전공교수 단독으로 강의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전공교수와 팀티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팀티칭의 경우, 내용은 전공교수가, 언어형태는 언어전공 교수가 맡는 식인데, 전공교수와 영어교수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탓에 운영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내 여건상 이러한 팀티칭이 어렵다면, 전공 수업 시 영어 원서를 다루면서, 혹은 영어 전공 강의를 통해 ESAP를 다루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교육주체는 학교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공교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들에게 ESP에 대한 기본적 소양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EOP 교과목에 대해 덧붙이자면,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상황에서의 기본 영어회화, 영문 이메일 등 문서 작성, 취업을 위한 영문 이력서와 커버레터 작성 등을 아우르는 EGOP 교과목들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영어능력과 진로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인데, 영어 학습 자체의 비중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어전공교수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만약에 전공의 특성에 따라 ESOP 교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면, 앞서 논의한 ESAP의 경우와 같이 운영을 하면 될 것이다.

이상으로 ESP 교과목 운영방안에 관한 제안을 했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ESP 관련 연구는 본 연구를 포함하여 대부분 학생이나 교수들의 요구분석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는데, 향후에는 ESP 교과목 운영 및 효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강좌의 목표 및 성격과 함께 학습자와 교수자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ESP 교강사의 훈련에 관한 연구와 ESP 교과목을 위한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특히, 코퍼스 기법을 이용한 교재 개발은 ESP 교과목을 개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서 신창원(2012), 장세은과 변현정(2011)에 나타났듯이 기존에 특수코퍼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세부전공 분야에 대해 소규모 코퍼스를 구축하여 ESP 교육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현옥. (2008). 특수목적영어 교과 현황 및 개발 방향. *영어교육연구*, 20(3), 143-168.
- 김현진. (2005). 지방대학 교양영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영어교육 전문가 설문 연구: 텔파이 설문을 중심으로.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2(4), 317-347.
- 김현진, 성명희. (2006). 현장 친화적 ESP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모형 연구. *영어영문학연구*, 48(1), 85-104.
- 김현진, 이종복, 윤재홍. (2006).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무형 ESP 교육과정 개발. *현대영어영문학*, 50(2), 151-175.
- 박남식, 조준학, 김충배, 김임득, 최인철. (1998). 실용 영어 의사소통능력 인증 제도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 53(2), 179-205.
- 박부남. (2006a). 이공대 학생 중심의 누리영어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외국어교육*, 13(1), 297-329.
- 박부남. (2006b). 컴퓨터 정보통신 공학부 영어 교수 학습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영어교육연구*, 18(3), 191-222.
- 신동일. (2003). 비원어민 교사들의 영어수업 진행능력 평가영역 개발: ESP 관점에서. *영어교육*, 58(4), 61-98.
- 신창원. (2012). ESP 교육을 위한 소규모 코퍼스 구축: 기계공학 관련 논문초록을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 사회*, 17, 175-205.
- 유근선. (2001). 실무영어 교재의 내용구성에 관한 연구. *비서학 논총*, 10(1), 5-27.
- 이정민, 홍영지. (2010). 공학 교양영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7(3), 323-345.
- 장세은, 변현정. (2011). 코퍼스를 활용한 해사영어 어휘 분석. *새한영어영문학*, 53(4), 247-268.
- 전지현, 최윤미. (2002). 비즈니스 영어 평가 개발을 위한 텔파이 연구. *영어교육*, 57(2), 451-479.
- 정미애. (2007). 비즈니스 영어 코퍼스 생성과 분석. *언어연구*, 23(3), 429-451.
- 정동수, 김해동. (2001). 대학의 교양영어 과목 개선을 위한 연구. *영어교육*, 56(4), 265-292.
- 조세경, 문승철, 이강혁. (1997). 대학영어의 교육환경과 제도의 개선방안. *영어교육*, 52(4), 303-330.
- 조정순. (2002). 대학 교양영어 교육의 현황과 방향성 탐구. *영어교육*, 57(2), 365-394.
- 최경희. (2006). 관광영어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요구분석. *영어어문교육*, 12(3), 243-266.

- 홍영지, 이정민. (2011). 공학도 중심의 영어교육에 관한 기초연구: 공대생과 공대교수의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응용언어학*, 27(1), 131-165.
- Bennett, G. R. (2010). *Using CORPORA in the language learning classroom: Corpus linguistics for teachers*,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lue, G. M. (1988). Individualising academic writing tuition. In P. C. Robinson (Ed.), *Academic writing: Process and product* (pp. 95-99). Oxford: Modern English Publications in association with the British Council.
- Conrad, S. (2002). Corpus linguistics approaches for discourse analysis.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22, 75-95.
- Dudley-Evans, T., & St. John, M. J. (1998). *Developments i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tchinson, T., & Waters, A. (1987).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A learning-centered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rdan, R. R. (1997).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Hyeon-Okh. (2009). *The specificity of ESP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18th MELTA International Conference. Johor Bahru, Malaysia.
- Park, Myong-Su., & Kim, Seok-Hwan. (2011). How to extract domain-specific vocabulary in ESP. *English Language Teaching*, 23(1), 183-201.
- Soh, Yoon-hee. (2003). Teaching EAP in Korean universities: A task-based approach. In S. Oack & V. Martin (Eds.), *Teaching English to Koreans* (pp. 125-145). Seoul, Korea: Hollym.
- Soh, Yoon-hee. (2004). Needs analysis of English for nurses: Practitioners' and professors' perception.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0(1), 81-105.

부록 1
학생용 설문지

본 설문지는 본교 교양영어교육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교과목명: _____
- 성별: ① 남 ② 여
- 학년: ____ 학년
- 전공: _____
- 최근 2년 내 공인(모의) TOEIC 성적 중 최고 점수는? (해당 안되면 공란으로 남김)
 - ① 400점 미만 ② 400~600점 미만
 - ③ 600~800점 미만 ④ 800점 이상

I. 아래 보기를 보고 질문에 답하세요.

- | | |
|-----------------------|-----------|
| ① 기초영문법 | ② 기초영어글쓰기 |
| ③ 기초영어청취 | ④ 전공영어독해 |
| ⑤ 전공영어글쓰기 | ⑥ 실무영어독해 |
| ⑦ 실무영어글쓰기 | ⑧ TOEIC |
| ⑨ TOEIC Speaking/OPIc | |

(1) 위의 보기 중 정규 영어 교과목으로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과목의 번호를 3개 적으세요.

(_____)

III. 아래 보기를 참조로 해서 아래 질문에 답하세요.

- | |
|--|
| ① 기초 영어 실력을 다지는 교과목 (예: 기초영문법, 기초영어글쓰기) |
| ② 전공학습에 필요한 영어 교과목 (예: 전공영어독해연습, 전공영어글쓰기) |
| ③ 졸업 후 실무에서 사용될 영어 교과목 (예: 실무영어독해, 실무영어글쓰기) |
| ④ 취업영어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영어 교과목 (예: TOEIC, TOEIC Speaking, OPIc) |

(1) 본인에게 필요한 교과목 유형의 우선순위를 번호로 쓰세요.

(_____ → _____ → _____ → _____)

(2) 위와 같이 답한 이유를 아래에 쓰세요.

부록 2

교수용 설문문항

1. 아래 교과목 중 향후 개설된다면 교수님의 전공학생들에게 가장 유익할 것 같은 영어 과목을 3개 고르세요(없거나 3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기초영문법, 기초영어글쓰기, 기초영어청취, 전공영어독해, 전공영어글쓰기, 실무영어독해, 실무영어글쓰기, TOEIC, TOEIC Speaking

2. 아래에서 교수님의 전공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과목 유형의 우선순위를 번호로 쓰세요.

- ① 기초 영어 실력을 다지는 교과목(EGP) (예: 기초영문법, 기초영어글쓰기)
- ② 전공학습에 필요한 영어 교과목(EAP) (예: 전공영어독해연습, 전공영어글쓰기)
- ③ 졸업 후 실무에서 사용될 영어 교과목(EOP) (예: 실무영어독해, 실무영어글쓰기)
- ④ 취업영어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영어 교과목(ETP) (예: TOEIC, TOEIC Speaking/OPIc)

3. “전공학습에 필요한 영어 교과목”의 경우, 일반적인 전공영어 학습이 주된 목적(EGAP)인 경우와 실제 전공영어 학습이 주된 목적(ESAP)인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 내용 학습이 주된 목적(EMIC)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본교에서는 EGAP와 EMIC 교과목은 개설이 되고 있으나 ESAP 교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는데, 향후 ESAP 교과목 개설시 강의자는 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① 영어전공 강사
- ② 해당전공 강사
- ③ 해당전공 강사와 영어전공 강사의 팀티칭(team teaching)
- ④ 기타 ()
- ⑤ 개설할 필요가 없다.
- ⑥ 개설할 필요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다.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하중범

금오공과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730-701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지방 대학 ESP 교과목 편성을 위한 요구 분석 : 공과계열을 중심으로 205

Tel: (054) 478-7862

Email: jbha@kumoh.ac.kr

Received 15 September 2013

Revised 4 November 2013

Accepted 16 November 2013